

# 올해 화순군 최고 혁신정책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화순군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조감도.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이 올해 화순군 정책 중 가장 혁신적인 정책으로 뽑혔다.

화순군은 지난 10일 내부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20년 군정 혁신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군정혁신 우수사례 4건 선정...2위 '1000원 버스 운행'

### 3위 '집콕요리조리교육' 4위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사업'

화순군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은 지난 6일까지 600여 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340표를 받았고, 1차 내부심사 점수 합산 결과 최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복지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하나로 통합한 건축물이다.

개별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늘어났을 도지매입과 부지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 일원화로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로는 화순 곳곳을 누비는 '1000원 버스 운행'이 선정됐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1000원 버스는 구간별로 요금이 달랐던 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해 버스 이용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1000원 버스 운행 외에도 '100원 효도택시'의 이용 대상을 임신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며 놓여준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

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3위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집콕요리조리교육'이, 4위로는 전라남도·화순전남대병원과 협업을 통해 유치한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화순군은 이번 군정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7건을 평가해 1차로 8건 선정하고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2차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4건 외에도 같이 후보에 오른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체계적 관리', '주민참여형 혁신적 면 명칭변경'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우수사례에 선정되지는 못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수사례가 될 만한 정책을 발굴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화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공직자의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해 올해가 가기 전 혁신 워크숍을 2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성 한우' 명성, 으뜸 송아지로 잇는다

### 한우 송아지 브랜드 출범식

'명품 한우'로 유명한 장성군이 황룡우시장에서 '으뜸 한우 송아지 출품식'을 가졌다. 일반 송아지 가격보다 80만원 가량 높게 거래되는 등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출품식은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혈통 등록된 암소를 선별한 뒤, 유전적으로 뛰어난 우량 한우의 정액을 인공 수정해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생산된 송아지에는 외모 심사와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으뜸 송아지' 브랜드를 부여한다. 장성군을 포함해 전남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출품식에서 장성군은 지역 내 20개 농가가 생산한 '으뜸 한우 송아지' 30마리를 경매시장에 올렸다. 그 결과 평균가 455만원, 최고가 528만원을 기록하며, 일반 송아지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목사동면 용산단지킴이 "신승겸 장군은 우리가 지킨다"

곡성군은 목사동면 주민 봉사단체 '용산단지킴이'가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양정용 단장 외 20명의 목사동면 고령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단지킴이는 11일 목사동면 용산재에 오르는 도로변을 찾았다. 철쭉 사이로 고개를 내민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를 진행했다.

용산재는 고령을 세우는 데 공을 세운 곡성 출신 신승겸 장군을 위한 사

당이다. 그의 충성심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곡성군이 신승겸 장군의 고향인 용암마을에 세운 이래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용산단지킴이는 이같은 지역문화자원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1달에 2번씩 8년째 용산재 내부와 진입로에 대해 환경정비를 해오고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 담양군,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 공공비축미 40kg 포대벼 기준 총 71601가마 28640톤 매입

담양군이 11일 담양읍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각 읍면에서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를 매입한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새일미와 신동진 2개 품종이며, 총 매입량은 40kg 포대벼 기준으로 타작물 인센티브 물량을 포함해 71,601가마를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

준으로 결정되며, 중간정산금 40kg당 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직후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12월 말까지 최종 정산해 지급한다.

한편 군은 작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의 수매를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종검정제도는 매입대상 농가 중 5%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DNA검사)을 실시, 매입대상 품종인 새일미



담양=박정영 기자

와 신동진 외 품종이 20%이상 혼합된 농가를 주민등록상 가족을 포함하여 향후 5년 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한시키는 제도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

## 나주시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2차 신청받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나주시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공연, 작품 활동 등 행사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문화예술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신청자격은 1차 때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도 중위소득 120%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서류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1차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으로 예술인 총 23명에게 긴급지원비 1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이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단감, 말레이시아에 44톤 수출길



청정지역 구례에서 생산된 단감이 올해 첫 수출을 시작했다. 구례농협(조합장 조재원)은 13일

구례농협산지유통센터(APC)에서 김순호 구례군수, 군의원, 구례농협 임직원과 생산농가 대표 등 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2020년 구례 단감수출상차식을 가졌다.

구례단감은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와 두바이에 16톤을 첫 수출을 시작으로 해마다 수출량을 늘려 왔다.

올해는 120톤 수출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이른봄 냉해와 잦은 비로 인해 대다수의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60톤 정도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상차식은 '구례농협 덕분입니다'라는 농민들에게 고마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구례=박진호 기자